

**평화** 세상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 가꾸지 않고, 땅을 풀러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실을 빨리 얻고 싶어합니다. -백유경-

# 현대불교

통사하는 불교 시사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1월 1일 창간호 041)734-2680 대전 신성시 연안연 송정리  
무료부재간이 있는 불교 전문지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2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299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문화재 관리**

인력·예산 확보 안되니 현황 파악마저 제자리

의 보호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국 사찰의 문화재 현황 파악도 느리지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폐사지 조사는 아직까지 문헌조사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치와 문화재 소재 여부에 차이가 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성보문화재의 현황 보고서가 일체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하고 난 뒤로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더 이상 늦을 수 없는 문제다. 효율적인 성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다. 문화재 현황 파악이나 폐사지 조사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데는 그만큼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문화재 관계자들은 말한다.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울 들어 늘어나고 있는 성보박물관의 경우 성보의 보존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문 학예연구사 없는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모아놓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 학예연구사의 경우 사찰의 대소에 걸려 다니지 않고 전문인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권형진 기자(jny@buddhania.com)

불교개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 사찰 신도교육 의무화

조계종 내년 3월부터 입문-기본-전문-지도자 교육

1차 100개 사찰·지역서 실시

내년 3월부터 신도교육이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의무화된다. 조계종 포교원(인장 정현)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00개 사찰 및 지역에서 신도 입문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지도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기본교육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1억3천500만원을 책정한 포교원은 교육단계별 교육기관의 확충 및 인가와 올해 10월부터 집결에 들어간 입문-기본-전문교육 교안발간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원의 신도교육 방침은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시켜 평생동안 수행활동을 하며 종단과 불교,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 각 사찰과 교안개발에서 진행중인 교육내용이 각기 상이함에 따라 괴이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도의 입문과 교육, 조계, 법계, 의례의식 등이 하나로 통일되는 성과도 예상된다. 신도교육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지역별 사찰별 조사작업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실시를 희망하는 사찰 및 지역의 신청도 자율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 주어진다. 또 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포교분야에서 활동한 불자는 포교원에서 지도자교육을 받고 전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현선님은 "신도교육이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신도와 기존신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며 "교육을 받은 불자들이 올바른 불자로 성장해 종단의 토대가 구축될은 물론 직장 등 사회에서 불교 수행활동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돼 전방적인 불교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작은 정성도 모이면... 북한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통일복지재단 모이기'에 동참한 정진아네와 유수스님이 저금통을 깨며 즐거워 하고 있다. 한국JIS(이사장 법륜스님)가 돼지저금통을 통해 모은 금액은 3000만원. JIS는 이 돈을 이월 말 북한의 고아원과 어린이 구호 활동에 쓴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신속처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및 소속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정대스님은 공문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본종 산하 사찰의 비지정문화재 도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심의·의결 처리되어 더 이상의 문화재도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종교인 윤리현장 선포 실천강령 8개항 채택

"우리 종교인은 파괴된 자연과 환경을 회생시키며 나아가 모든 생명체의 보전과 번영을 위한 생명윤리를 적극 실천한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10개 종교지도자들이 새천년 종교인 윤리현장을 선포했다. 9개 종교지도자들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주최로 열린 윤리현장 선포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인류에게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윤리가 요청되고 있다"며 생명·과학·문화·가정과 관련된 8개항의 실천강령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교육위원장 일민스님, 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통리인

## '해인골프장' 고법판결 앞두고 불교계-환경단체 바쁜 움직임

"심판결 뒤집힐러" 재판부에 진정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 주지, 12교구(해인사) 본발사 주지스님들이 서명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사업주(가야개발)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서울소재 거대 로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상에서 1상의 판결 내용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담당재판부에 진정서를 보

환경 파괴, 국립공원제도 도입 취지의 유명무실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해인사의 사찰환경 훼손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해인골프장의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국민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야개발은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골프장 건설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 1월 서울 행정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며, 다음 달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성운 기자

##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관절염 앓는 노스님이나 불우신도를 주위에서 추천해 주세요"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 6~8명 정도 ◆지원 대상: 노스님,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불자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단한 의뢰원신정서(소정양식)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인박) 및 무릎 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현대불교신문사·동인천 길병원 후원: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래)

#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 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